
 국토교통부	<h1>보도자료</h1>		
	배포일시	2022. 1. 25.(화) / 총 7매(본문7)	
담당 부서	교통정책총괄과	담당자	· 과장 김정희, 사무관 남승헌, 주무관 김민진 ☎ (044)201-3786, 3793
	도로정책과		· 과장 장순재, 사무관 최승필, 주무관 박재원 ☎ (044)201-3874, 3883
	교통안전정책과		· 과장 강성습, 사무관 장상준, 주무관 이현영 ☎ (044)201-3863, 3864
	버스정책과		· 과장 장구중, 사무관 장형석, 주무관 손주희 ☎ (044)201-3824, 3825
	물류산업과		· 과장 박진홍, 사무관 이경섭, 주무관 김정택 ☎ (044)201-4021, 4026
	항공산업과		· 과장 심지영, 사무관 박춘식, 주무관 정우갑 ☎ (044)201-4224, 4222
	디지털도로팀		· 과장 김종오, 사무관 장유진, 주무관 김강산 ☎ (044)201-3928, 3935
	철도운영과		· 과장 오수영, 사무관 김광수, 주무관 최문갑 ☎ (044)201-4636, 4637
담당 부서	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	담당자	· 과장 변혜중, 사무관 전재경, 주무관 함병선 ☎ (044)200-5733, 5734
보도일시		2022년 1월 26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26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이번 설에는 고향·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세요

- 대중교통 이용시 KF-80 이상 마스크 권장, 휴게소 실내취식 금지 등 오미크론 감염확산 방지에 총력-

- ◆ 총 2,877만 명(하루 480만 명) 이동...승용차(91%)→버스(4%)→철도(3%) 순
- ◆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, 고속도로 휴게소 등 방역 및 혼잡 관리 강화
- ◆ “상시 마스크 착용”, “휴게소 체류시간 최소화”, “물간식 충분히 준비” 등 당부
- ◆ 드론, 암행순찰차, 헬기 등을 활용하여 음주운전, 난폭운전 등 집중 단속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중대본의 “설 연휴 고향·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”를 기본 방향으로,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을 “설 특별교통대책기간”으로 정하고, 관계기관 합동으로 “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”을 수립·시행한다.

□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'설 연휴 통행실태조사*'에 따르면, 설 특별교통대책기간(1.28~2.2, 6일간) 동안 총 2,877만 명**, 하루 평균 4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,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는 1일 평균 462만 대로 예측된다.

* '21.12.20~'22.1.16, 총 14,026세대 대상,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시행

** 하루 평균 이동량 기준, 지난 설 대비 약 17.4% 증가

○ 최근 코로나-19 확진자 증가 추이, 사적모임 제한으로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들이 19.4%를 차지하고 있어, 실제 이동 규모 및 혼잡 상황 등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.

□ 특히, 설을 앞두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번 대책은 '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'에 중점을 두었다.

*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 : 4.0%(12월5주)→12.5%(1월1주)→26.7%(1월2주)→50.3%(1월3주)

<1> 휴게소·역·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방역 강화

□ 우선,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,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.

○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, 이용자관리(QR코드, 간편전화 체크인),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, 실내 취식금지를 통해 이용자 출입 및 취식관리를 강화한다.

○ 또한, 현장에서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.

- 특히,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7개소, 철도역 1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이동 중에 진단검사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《휴게소 방역관리 대책》

- ① (동선 관리) 출입구 구분 운영 및 이용자 동선 관리
- ② (출입 관리) 발열여부 체크, 출입자관리(QR코드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)·운영,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금지, 안내인력 배치(약 1,300명) 등
- ③ (취식 관리)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, 실내 취식 금지 및 야외 테이블 가림판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시행, 비접촉 결제 유도 등
- ④ (화장실 관리) 고속도 주요 휴게시설(휴게소, 졸음쉼터 등) 임시 화장실 확충(579칸, 휴게소 502칸, 졸음쉼터·TG 등 77칸), 거리두기 바닥표지 부착, 상주 관리인력 배치 등

- 아울러, 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(30개소) 및 혼잡정보 도로 전광표지(VMS)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한다.

- 국도·지방도 주변 휴게시설, 터미널 등 민간 운영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방역수칙 준수 현장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.

- 이용객이 몰리는 철도역, 버스·여객선 터미널, 공항 등 모든 교통 시설에 대해서도 수시 방역 및 상시 환기, 동선 분리,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최상위 수준의 방역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다.

《철도역, 버스·여객선 터미널, 공항 등 방역 대책》

- ① (소독·환기) 소독(1~3회/일 이상, 손잡이 등 접촉 많은 곳은 수시), 주출입구 등 상시 환기 강화
- ② (방역 강화) 안내방송 및 홍보물 비치, 진출입구 열화상카메라 설치·운영, 손소독제 등 비치, 중점 시설 사전점검 등 방역 강화
- ③ (거리 두기) 승·하차객 동선 분리, 매표소 등 투명 가림막 설치, 스마트 탑승수속 서비스 강화

<2> 대중교통 수단별 상시 방역활동 강화

-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중교통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, 이용자 집중 및 밀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시행한다.
- 철도는 창가좌석만 판매제한·운영 중이며, 버스·항공은 창가좌석 우선 예매, 좌석 간 이격 배치를 권고하고 여객선의 경우 증선·증회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.
- 또한, 모든 교통수단(차량 등)에 대해 운행 전후 소독 강화 및 수시 환기, 비대면방식 예매 실시, 차량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대화 자제, 음식물취식금지를 강력히 시행할 계획이다.

《 교통수단 방역관리 방안 》

- ① (예매) 비대면 예매 실시, 현장발매 거리두기 시행, 차내 혼잡도 관리 등
 - * (철도) 100% 비대면 예매, 10%는 IT 취약계층(노인/장애인)에 할당, 전화 등으로 예매 (버스·항공) 창구 매표 투명가림막 설치, 창가좌석 우선예매, 좌석 간 이격 권고 (연안여객선) 모바일 승선권, 인터넷 예매 활성화 등 방역관리 강화
- ② (탑승) 운행전후 소독 강화, 마스크 착용 의무화, 발열체크 등
 - * (철도) 출도착객 동선분리, 손소독제 비치, 마스크 착용 의무화, 음식물 섭취 금지 등 (버스) 2시간마다 휴식, 손잡이 등 수시소독, 차량 내 여분 마스크 비치 등 (항공) 셀프체크인(192대), 셀프백드랍(76대), 검역 전용게이트 등 비대면 서비스 강화 (연안여객선) 탑승객 전원 발열체크,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선내 취식관리 등
- ③ (이용) 수시 환기, 차량 내 안내방송, 대화 및 취식 자제 등 방역수칙 지속 홍보

- 한편, 정부는 지난 추석과 동일하게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고 밝히며, 통행료 수입은 고속도로 방역활동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.

〈3〉 설 맞춤형 방역수칙 메시지 홍보 강화

- 코로나-19로부터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가장 중요한 만큼, 방역 수칙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.
-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TV, 라디오, 누리집(홈페이지), SNS, 교통시설 및 수단 등 가용 홍보 수단을 총 동원하여 교통 분야 주요 방역수칙 메시지를 집중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한다.

« 교통분야 방역수칙 메시지 »

- (전 국민) △ 고향·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△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
△ 의심증상 있으면 검사받기 △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철저
- (자가용 이용자) △휴게소에 머무는 시간 최소화, △ 차량 내 휴식,
△출발 전 물, 간식 등 충분히 준비 등
- (대중교통 이용자) △상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, △혼잡한 시간대 피하기,
△창가좌석 우선 예매 및 띄어앉기 실천, △음식물 취식금지 등
- (사업자·종사자) △수시소독, △주출입구 등 주기적 환기, △탑승자 명단관리,
△차량 내 여분 마스크 및 손소독제 비치 등

- 아울러, 휴게소·터미널 등 중점 관리필요 시설에 대해 사전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, 운수업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차량 소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.

〈4〉 고향가는 길 교통안전 확보

-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·귀경길이 되도록 졸음·음주·난폭 운전 등 사고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, 버스·택시·화물 운수업체 및 종사자 교통안전 점검·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.

○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(10대), 암행순찰차(21대)를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고속도로 나들목,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시행하는 한편,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도 강화한다고 밝혔다.

○ 장거리 운전대비 자동차 무상점검* 서비스를 실시하고 겨울철 사고 예방수칙에 대한 홍보 및 화물차 '휴식-마일리지' 캠페인을 시행할 계획이다.

* '22.1.26(수)~28(금) 3일간, 현대·기아·지엠 등 2,114개 서비스센터(08:30~17:30)

〈5〉 폭설 등 비상상황 대비태세 강화

□ 겨울철 기상 악화(폭설·한파), 사고 발생 등을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결빙구간 및 취약구간 집중관리를 위해 도로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.

○ 국토교통부 본부, 각 지방국토관리청, 국토관리사무소, 도로공사에 제설대책반을 편성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제설장비를 사전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도로공사, 고속도로순찰대, 119구급대 간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 시 긴급 후송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교통방송·VMS·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고속도로 소통상황 및 돌발상황(사고·통제 등)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.

〈6〉 교통량 분산, 소통 향상 등 교통관리 강화

□ 국도 조기 개통, 갓길차로제 운영으로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,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 집중을 완화하는 등 교통관리도 강화한다.

- 도로 차량 소통 향상을 위해 **국도 39호선 토당~원당 등 17개 구간(110.7km)**이 개통된다.
- 뿐만 아니라, 교통혼잡 예상구간을 선정해 관리하고, **갯길차로제** (13개 노선 63개 구간, 316.7km), 고속도로 나들목(IC) 진출구간 혼잡에 따른 본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**임시 감속차로**(6개 노선 15개소 11.5km)도 운영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교통량 분산을 위해 **첨단 정보통신기술(ITS)**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, 고속도로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**우회 노선 소요시간 비교 정보**를 제공할 예정이다.

< 실시간 도로 교통정보 확인 >

(인터넷) 국가교통정보센터(www.its.go.kr), 한국도로공사(www.roadplus.co.kr)

(모바일 앱) 국가교통정보센터, 고속도로교통정보

(안내전화) 1333(고속도로, 국도), 1588-2504(고속도로)

(기타) 도로전광판(VMS, 2,116개소), 옥외광고판(26개 지자체 3,194개소) 등

- **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, 설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로 “오미크론 확산이 우려되므로,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”하며, 철저한 교통 방역 태세를 구축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.**
- 아울러, “겨울철에는 폭설·한파 등 기상여건 악화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**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**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정책 총괄과 남승현 사무관(044-201-3786), 김민진 주무관(044-201-379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